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5월 31일 (제105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겐 렘

다 맡겨라

얼마 전, 어느 성도님이 양복을 해주신다 길래 그분과 함께 한 양복점을 찾았다. 그 양복점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은 양복계에서 명인으로 소문난 분이였다.

내 몸 치수를 잰 주인이 내게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묻는다. 나는 그에게 “주인장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정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양복을 40여 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난 그의 답변이 더 의아했다. 명인이 어떤지 알아서 잘 만들어줄까. 명인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나. 괜히 이러쿵저러쿵하면 명인의 자존심에 생채기만 낼 뿐 아니겠는가.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더니 정말 양복은 어느 한 곳 나무랄 곳이 없게 잘 나왔다.

가끔 어떤 문제를 들고 와서 ‘목사님이 이걸 좀 해결해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있다. 내가 관여해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거다. 그럴 때면 나는 이런 단서를 단다. “나에게 이걸 완전히 이양하고 당신이 손을 댄다면 하겠소. 도중에 왈가왈부한다면 나는 못합니다.”

나를 믿고 온전히 맡긴다면 내가 해보겠지만, 다는 못 믿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한다면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인들 아니 그러시겠는가. 온전히 못 믿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단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실까. No. 오직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증거이니까.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의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5~6), “너의 행사를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16:3).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 온전히, 완전히 주께 다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리라.

미련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방하라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임을 강조하셨다. “학자나 교수, 박사들이 나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어라’ 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미련하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미련할지라도

남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천하고 멸시받고 없이 사는 우리들을 택하사 스스로 있다고 교만 떠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고전1:18~31).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앞에 부들부들 떨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믿음은 죄다 팔아먹고

배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께 받은 지혜 외에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르다면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늘 기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몽골 집회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바람을 잠잠케 하고, 멕시코 집회 때 비를 멈추고, 아프리카 집회 때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 역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도전하여 밀어붙인 것입니다. 여러



예수 이름으로 비를 멈추고 진행한 멕시코 팔렌케 집회

나는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기에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은 현대과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행했는데 갈라집니까?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겐 우리가 미련해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해보일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미련하고 무식하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아닙니까? 하나

왜 침륜에 빠져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귀신의 밥이 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목회 36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내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줄 알기에 미련하고 무식하다고 할지언정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면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은 해외집회 영상을 통하여 솔하게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현지 목회자나 집회 관계자들조차 두려워 포기하고 물러가는 일들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물려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이 나와 함께 역사해주셨고,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명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가 미련하다고 손가락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8:5~11)



오해는 믿음이 떨어질 때 싹튼다

심방 길에 어린아이가 사과를 두 개 들고 있길래, 장난삼아 “애야, 사과 하나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왼손에 들고 있던 사과까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이를 본 엄마가 당황해서 화를 내며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 어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했더니 아이가 ‘으앙’ 하고 울면서 “그게 아니야. 엄마가 남에게 줄 때는 좋은 것으로 주라고 해서 어느 것이 맛있는지 먹어보고 주려고 했지.”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오해했네요.

오해(誤解)는 잘못 풀었거나 잘못 알았다는 뜻으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고로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왜 오해가 생길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떨어져서입니다. 못 믿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전철이 복잡했나 보네. 이런 게 다 묻고.’ 하고 세탁하겠지만, 남편을 못 믿거나 시원찮게 믿는다면 “어디 다녀왔어? 어떤 여자야?” 하며 대대적인 부부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설령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묶어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오이 몇 개 없어졌겠네.’ 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나를 탓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다윗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인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18:7)라며 다윗을 대대적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에는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이놈이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 하며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삼상18:8). 왜 그런 오해가 싹텄을까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비참한 최후로 막을 내립니다.

어느 장로가 제게 와서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 이러 저렇게 안 좋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굉장히 섭섭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봐.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못 믿는다는 증거야.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어떻게 깨는 줄 아니? 다

이너마이트에 연결된 선에 불을 붙이면 그 선을 타고 들어가 그것이 터져서 바위를 깨는 거야. 자네 안에 의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린 것 아니겠나. 나를 그렇게 몰라?”라고 따끔한 일침을 놔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오해를 해서 비참한 결과를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놓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밋이 아합에게 더 물어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자, 왕은 미



가 아니라
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에
게 좋은
말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해한 거
죠. 미가야
는 단지 하
나님의 말
씀을 전했
을 뿐인데
아합은 미
가야가 자
기에게 개
인적인 감
정이 있어
그리 한 줄
로 오해한
겁니다. 아
니나 다들
까 미가야
는 아합에
게 이번에도
전쟁에 나
가면 죽을
것이니 나
가지 말라
고 합니다.
아합은 ‘거
봐라. 지금
도 그러지
않느냐?’
며 그를 감
옥에 가두
고 전장에
나갔습니
다. 결과요?
당연히 죽
었지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입니다(롬4:17).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나 인정도 없으신 분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도 묵묵히 그 말씀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

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한 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20~22).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짐승, 선과 악이라는 두 짐승, 믿음과 불신이라는 두 짐승입니다. 이 둘은 약육강식의 관계인지라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긍정에 더 먹이를 주면 긍정이 부정을 이기지만, 부정에 먹이를 더 주면 부정이 이기고, 선에게 먹이를 더 주면 선이 이기게 되나 악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이 선을 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생사화복을 펼쳐놓으셨습니다(신30:15). 그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긍정과 선과 믿음을 택한다면 생명과 복이 오겠지만, 부정과 악과 불신에게 먹이를 주면 죽음과 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답답하시나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일랑 하지 말고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제 목회 36년은 그야말로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이었으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버렸나봐.’ 이런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이건 나를 강하게 하려는 훈련이야. 이건 과정에 불과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명성을 드높여주셨고,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믿음과 긍정에 절대적으로 먹이를 준 결과입니다.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된다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자고로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속에는 부정과 악이 존재하고 있었습시다만 이제 예수로 인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바로 예전 습성이 나와 부정과 악과 불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당신이 구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일 거고, 그것이 옳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당신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될 것이고, 반드시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거자씨만한 믿음 ::

팬데믹(Pandemic)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6단계의 전염병 위험수준 중 최고등급인 6단계에 해당하는데, 요즘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확진자 489만 명, 사망자 31만 명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더 큰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감염학자들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BC 10세기경 중동 지역의 악성종양을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대략 10개 정도가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원전 10세기경에는 악성종양으로 인해 중동 블레셋 인구의 반 이상이 사망하였고, BC 430년 아테네 역병은 아테네 인구의 1/3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166년 로마 안토니우스 역병은 5백만 명 사망, AD542년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5천만 명 사망, AD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1억 명 사망, 16세기 천연두 역병은 아메리카 잉카 및 아스텍 문명의 몰락, AD 19세기 인도의 콜레라 역병은 1억 명 사망,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 사망 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중동지역 악성종양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라고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

어 있습니다. 아테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당시 극에 달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중세의 흑사병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성직자의 비리와 타락 등 부패한 교황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요? 16세기 잉카와 아스텍 제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19세기 인도의 콜레라는 힌두교의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유행한 스페인 독감과 20세기 후반 100만 명의 사망자를 야기한 홍콩 독감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과 패권주의에 대한 진노가 아닐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 등과 같이 팬데믹의 주기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성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시85:4~7). 할렐루야!

Dr. 이관섭 장로

:: 신앙논객 ::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로 나라가 부도가 났을 때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중학생이었다. 뉴스를 통해 곤두박질치는 주가와 치솟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냥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나라의 빚을 갚는데 써달라며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모아진금이 외환보유고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빚을 갚고 구제금융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8년, 증권사에서 일하던 당시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증권사 지점 객좌에선 연일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아는 주가와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망연자실한 고객들을 상대했던 기억이 난다. 기라성 같은 금융사들과 몇몇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감소 같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펼쳤다. 그 여파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각 경제 지표

들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이제는 “그땐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대봉쇄(Great Lockdown)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자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전 국민의 헌신과 노력이 전 세계에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락하던 경제지표는 빠르게 회복 중이며, 오히려 이 난국을 기회 삼아 마스크와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권까지 수출하고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말했다. 일제 치하 36년과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나라, 외국의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원조를 하는 입장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 교회가 세워진 지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된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나라를 들어 쓰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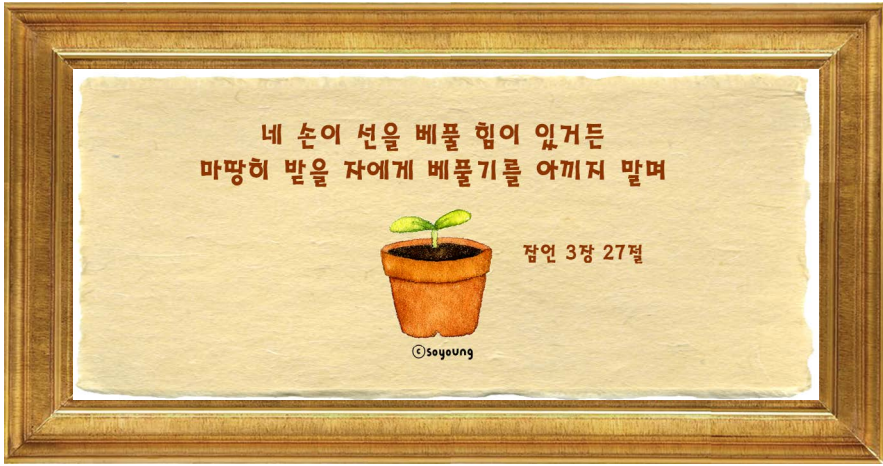
신혁주 전도사

예수님의 옷자락

마가복음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온다.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으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라고 한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느라 모든 재산을 썼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구약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혈루증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살아갈 아무 희망도 없고 죽음만을 바라보던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 여인은 죽음을 불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몰래 옷에 손을 대어 병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지어다”(막5:34).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오래된 쓴 뿌리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지만 아무런 이로움도 없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다. 오래된 쓴 뿌리들을 제거하려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뿐이었겠는가. 하지만 그 여인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일 집사



:: 낮은 울타리 ::

여호와께 맡기라

대학교에서 동아리 부회장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새터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함께 음식을 팔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식당에 도움을 주며 기부도 하고, 탈북 과정의 실태를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해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2주 앞두고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에서 식중독이 퍼진 것입니다. 행사에서 팔려던 음식은 따뜻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시선이 많아졌고, 참여율이 높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 측에서 행사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 없이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기부하기로 한 단체와는 약속을 한 후라서 행사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과정에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엮고 망연자실한 저에게 크리스천이던 회장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너무 우

리 힘으로만 하려고 했나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언 16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학교 일이라고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며 나를 의지하고 나의 노력만 믿었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넉넉히 2주 안에 마쳤고, 100명을 목표했던 저희는 약 25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가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쌓은 탑은 모래 위에 지은 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말지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길이 곧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수정

통증 덕분에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탑니다.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쪽에서 찌릿,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는 오른쪽 날갯죽지 아래. 그 부분이 아픈 건 처음이었죠. 응급 처치한다는 게 고작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어깨를 돌려서 스트레칭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는 효과가 전혀 없었지요. 찌릿찌릿 저리는 날갯죽지가 신경 쓰여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후다닥 집으로 갔습니다.

날갯죽지 통증, 어깨죽지 결림, 날갯죽지 스트레칭, 어깨 운동 등등 유튜브에 검색해서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사십 여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자 통증이 가라앉았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는 순간, 또 오른쪽 날갯죽지 아래가 찌릿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팠다가 스트레칭하면 풀렸다가, 또 아팠다가 스트레칭하면 풀렸다가. 일주일 정도 반복된 것 같네요. 한 번에 나왔다면 꾸준히 못했을 스트레칭, 덕분에 매일매일 했습니다. 퇴근 후에 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일어나자마자 이십 분, 잠자기 전에 이십 분씩 했고, 일다가 중간 중간 빈 회의실에 가서 짧게 몇 분씩 어깨를 움직여주었지요.

저는 버섯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번 자리에 앉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세까지 구부정했고요. 그로 인해 어깨가 항상 빠근하고 불편했는데,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치부하며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날갯죽지 통증은 무시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을 안 하곤 못 배기겠더라고요. 날갯죽지가 아픈 건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조언에, 어깨 위주로 하던 스트레칭을 골반, 허리, 무릎, 허벅지, 전신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으로 넓혀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자동으로 요가 매트를 찾아갑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붙은 거죠. 그래서인지 날갯죽지가 다시 아픈 적은 없습니다. 간혹 통증의 조짐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날엔 더 꼼꼼하게 몸을 풀어줍니다. 그 덕에 만성적으로 빠근하던 어깨도 전보다 나아졌고, 자세가 좋아졌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 잡지 코너에서 “통증의 세계”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찍힌 잡지를 보았습니다. 평상시라면 관심 없을 주제였지만 그때는 한창 날갯죽지로 고생하던 터라 재빨리 잡지를 꺼내 읽었지요. 통증을 느끼는 능력은 일종의 선물이라고 글쓴이는 말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뜨거운 난로를 건드려도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리지 않을 테고, 깨진 유리를 맨발로 밟는 걸 꺼리지 않겠죠. 즉 각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감각과 통증을 경험했던 기억을 통해 우리 몸은 다칠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도록 진화한 이유는, 통증이 자기보호에 매우 중요한 경보장치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통증을 느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더 큰 화를 당하지 말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길 소원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더딜지언정

새로운 군단장님이 부임하면서,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들부터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20~30대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을 키우라고 명령하고, 강도 높은 체력 측정을 예고하며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합격 기준은 완전군장을 한 채로 장거리를 달려서 정한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간부들 중 가장 어렸던 저에게도 버거웠습니다. 측정 결과는 부대별로 군단장님께 보고되기 때문에, 부대장님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모여 대열을 갖추고 측정 코스를 따라 연습했습니다. 대열의 맨 뒷자리는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뒤에서 밀어주거나 독려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겨 했고, 가장 어렸기에 제가 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측정일 즈음에는 모두의 체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측정일이 되었습니다. 전날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구토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데다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던 터라, 하나님의 명에 누가 되지 않도록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했고, 아프다는 핑계로 불참하여 부대장님께 부담을 주기도 싫었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대열에서 이탈하지만 양

면 되는 일이니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언덕을 넘어가는데, 평소와 다르게 힘들었습니다. 3분의 1 지점에 다다르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열에서 제일 먼저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대열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펜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체력에는 자신 있었던 터라, 처음 겪는 체력적 한계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깨에 맨 군장과 소총, 허리에 두른 탄띠, 심지어 전투화까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맨 뒷자리에 있다가 이탈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프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시작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체력 측정이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장교가 어떤 테스트가 되었든 불합격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으면서도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너무 숨이 차서 다른 말은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쩍이듯 총회장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왜 포기해! 포기는 자살행위야! 나는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간 적이 없어!”

그때부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홀로 뛰었습니다. 개천을 지나고, 숲길에 다다른 자, 저 멀리 동료 3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같

았습니다. 그곳까지만 따라붙으면 통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없는 힘까지 다 짜내어 가까스로 따라붙었습니다. 마침내 기준 시간 안에 목표 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것을 알았던 동료들이 그 사실을 여겨지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가장 늦게 통과하고도 수액을 맞고 땀 군인정신이 투철한 장교라고 생각지 않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인정신이 아니라, ‘포기는 자살행위’라고 외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기필코 정신’이 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소망하는 꿈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달려가지만, 더디 이루어짐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날 머릿속에 울렸던 총회장 목사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처럼(창15:1~6, 히6:13~15),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가지 않고 꿋꿋이 가다 보면, 더딤 속에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신8:2~3)과 인내 끝에 단련된 인격(롬5:4)을 갖추게 하시고, 결국은 제일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진 추억담을 만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정명관 집사

vic-777@naver.com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너는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네 땅을 점령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9장 47절에는 단 자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셋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단 자손은 제비 뽑아 받은 그들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가 그의 영토를 더욱 확장했다고 말한다.

인생 살다 보면 새로운 도전 앞에 주저할 때가 있다. 이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철저히 준비되었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언젠간 박차고 일어나 내게 주신 비전, 목표, 사명을 향해 뛰어어야 한다. 100%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7~80% 준비가 되었으면 일어나 도전하자. 부족한 부분은 부딪히며 차차 개선해 나가자.

도전의 두려움은 잠시일 뿐이다. 그 초기 단계만 뛰어넘으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만족감과 익숙해짐에 따른 안정감이 곧 찾아온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단 자손 지파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지 말이다.

장명훈 집사

